

“삼성전자, 이앤에스 임금체불·노조탄압 해결해야”

금속노조 경기지부, 3일 삼성 화성캠퍼스 앞 투쟁선포식 열어 ... 이앤에스 성실교섭 촉구

삼성전자 하청업체 이앤에스 노동자들이 사측의 임금 체불과 노동조합 활동 방해에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3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앞에서 경기지부 투쟁선포식을 열고 이앤에스지회 단체교섭 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삼성전자를 향해 즉각 이앤에스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투쟁선포식에서 이규선 노조 경기지부장은 “이앤에스 사측이 통상임금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불성실 교섭, 노조 탄압도 벌인다. 경기지부 1만 1천 조합원 힘으로 이앤에스지회 투쟁 꼭 승리하자”라고 강조했다.

최창섭 경기지부 이앤에스지회장은 “노사 단체교섭에서 사측 태도를 보며 노동자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다. 이앤에스 사측은 도급비가 올라야 임금도 올려 줄 수 있다며 임금 동결안까지 제시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삼성전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생준 경기지부 수석 부지부장은 “이앤에스 사측은 대법원이 내놓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조차 지킬 수 없다고 말한다. 최소한이다. 노조 교섭 대표로서 이앤에스 사측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현재 이앤에스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삼성전자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 임금을 받고 노조 탄압을 당한다. 삼성전자는 더 외면 말고, 임금 체불 등 이앤에스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앤에스는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에서 웨이퍼 운반 용기를 세척한다. 인력 부족으로 노동강도가 세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한다.

기흥·화성캠퍼스 간 자리 이동이나 업무 전환을 가위바위보와 제비뽑기로 정한다. 결국 이앤에스 노동자들은 2024년 8월 7일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현재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에 가장 완강하다. 대법원보다 통상임금 기준을 낮게 잡는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에서 체불이 발생한다. 사측은 대법원 기준의 30~40% 정도만 줄 수 있다며 버틴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안도 던졌다. 대법원판결보다 낮은 통상임금 기준, 기본급 동결 등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회 요구에 관해 내용 제시조차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불성실 교섭뿐만이 아니다. 사측은 노조 가입 방해와 탈퇴 강요·회유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다. 비조합원만 진급시키는 등 차별 대우도 서슴지 않는다.

최근 사측이 교대제 전환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다. 사측

은 특정 1곳 부서를 대상으로 기 설명했다. 교대제 전환 통보를 받 측과 함께 금속노조 탄압에 열
 존 3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 전 은 부서는 현재 이앤에스지회 파 올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환을 알렸다. 사측은 삼성전자 원 업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청이 교대제 전환을 지시했다고 지회는 삼성전자가 이앤에스 사

파업권 봉쇄, 노동3권 침해가 노사갈등 해결책?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노사민정 조정중재안에 유감 표명 ... “사측, 집중 교섭하자”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이 광주 노사민정 중재안을 비판하며 사측에 집중 교섭을 제안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3일 오전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특별위원회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회는 파업 유보 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 조정·중재특별위원회(광주 노사민정)는 2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발표했다. 광주 노사민정은 금속노조 GGM지회에 ▲35만대 생산 목표 달성시까지 파업 유보 ▲노사상생협의회 역할 존중 ▲2교대 근무 협력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GGM지회는 3일 기자회견에서 특히 파업권 봉쇄에 반발했다. 노동3권을 침해·훼손하는 방식으로 현재 GGM 노조 탄압과 노사갈등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GGM지회는 사측에 노사 간 평화 기간을 두고 집중 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사측이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에 임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GGM 노사갈등은 사측의 노동조합 부정에서 비롯됐다는 게 GGM지회 주장이다. 지회는 “GGM 사측은 특하면 상생을 말하는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상생이 가능할 것” 이라고 사측에 전했다. 지회는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동3권 보장과 함께 사측에 집중 교섭을 재차 요구했다.

사측은 지회 조합원 부당징계, 현수막 철거, 선전전 방해 등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다. 근로자대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임명 권한을 침해하기도 했다. 지난 3월 12일 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이 새 근로자대표로 선출됐다. 그러자 사측이 새 근로자대표가 임명하지 않은 전임 산안보건위 근로자위원을 들이밀고 나선 것. 사측은 사용자위원들이 동의했다며 새 근로자대표에 해당 산안위 근로자위원 임기 연장 인정을 강요하고 있다.